

2023 대구 영화 학교 결산 자료집

Five Star

| 파 이 브 스타 |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영화라는 매체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의 카메라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화의 매력에 빠져 처음으로 영화만들기에 온전히 뛰어든 12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서툴지만 이 가운데 별 다섯개의 거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세상 일은 알 수 없고, 그 어떤 고난에도 영화는 완성되기 마련이고, 가능성의 크기는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그 젊은 가능성들의 시작을 기록해 둡니다. 대구영화학교의 다섯번째 이야기.

Chapter 1

신규 영화 인력 양성 과정

COURSE OVERVIEW

모집공고

대구·경북 거주자
1차 서류평가 자기소개서, 에세이, 전공역량
2차 심층면접평가

합격자발표

총 12명
제작, 연출, 촬영 전공별 각 4명 선발

입학식 2023.06.07

개강 2023.06.12

전공수업

주당 12시간 수강
주당 이론·제작·연출·촬영 전공별 각 1회 진행
총 14주 과정

사전 제작실습

졸업생과 연계한 단편제작실습
총 4개 팀 10분 이하 4개 단편제작
2022년 7월 25일 ~ 8월 12일

심화과정 단편영화 제작워크숍

졸업작품 프리프로덕션
팀별 연출 및 촬영 멘토링 및 기술특강
총 6주 과정 / 이론수업과 병행

졸업작품 촬영 2023.09.18~10.13

편집

편집 및 편집 멘토링

졸업식 및 홈커밍데이 2023.12.26



CURRICULUM

	MON	TUE	THU	FRI	Remarks
1주	이론1 주요영화사	촬영1 영화문법과 장면	제작1 영화제작개론	연출1 시나리오 구성	
2주	이론2 고전영화리뷰 1	촬영2 카메라기초(실습)	제작2-3 수/프로젝트 기획개발 1 목/프로젝트 기획개발 2	연출2 시나리오의 이해	
3주	이론3 고전영화리뷰 2	촬영3 색과 빛	제작4 영화제작가이드 1	연출3 단편영화 이해 및 감상	
4주	이론4 장르영화리뷰 1	촬영4 화면구성과 프레임	케이스스터디 박두희PD		
5주	이론5 장르영화리뷰 2	촬영5 노출과 조명	제작5 영화제작가이드 2	연출4 스토리보드 1 / 피드백 1	
6주	이론6 독립영화리뷰 1	촬영6 기본조명설계(실습)		연출5 스토리보드 2 / 피드백 2	과제준비
7주	졸업생 연계 사전 제작실습 촬영				과제촬영
8주	이론7 독립영화리뷰 2	케이스스터디 추경엽 촬영감독	제작6 프로젝트 기획개발 3	과제발표 및 크리틱	과제발표
9주	이론8 독립영화리뷰 3	촬영7 연속성과 렌즈(실습)	제작7 프로젝트 기획개발 4	연출6 스토리보드 3 / 피드백 3	팀구성
10주	이론9 독립영화리뷰 4		제작8 프로젝트 기획개발 5	기술특강 ① 데이터	
11주	이론10 독립영화리뷰 5	촬영8 영화촬영 형식과 기능 1	제작9 시나리오분석과 제작기획서	연출7 연출멘토링 1	
12주	기술특강 ② 동시녹음	촬영9 영화촬영 형식과 기능 2	제작10 제작멘토링 1	연출8 연출멘토링 2	Pre- Production 5W
13주		촬영10 촬영멘토링 1		연출9 연출멘토링 3	
14주		촬영11 촬영멘토링 2	제작11 제작멘토링 2	연출10 연출멘토링 4	
15주				연출11 시놉시스피드백	
16주		촬영주간 2023.09.18~10.13			Production 4W
17주					
18주					
19주	기술특강 ③ 편집				
20주				제작비 정산	Post- Production 3W
21주				편집 LOCK	
22주				졸업식	

※ 전공에 상관없이 수강생 전원은 모든 수업에 참여함

※ 졸업생 연계 사전 제작실습 과정은 전공별 1명씩 배정된 4개팀이 10분 내외 실습작품을 제작

※ 심화과정 단편영화 제작워크숍에서는 전공별 1명씩 총 4개팀을 이뤄 졸업작품을 제작



영화이론 책임강사
박인호 평론가
 현.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회원
 전. 부산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
 전. 인디크리틱 편집장



영화연출 책임강사
유지영 감독
 장편 <나의 피투성이 연인> 감독, 장편 <수성못> 감독
 장편 <너와 극장에서: 극장쪽으로> 감독
 단편 <어느날 갑자기> 감독
 단편 <고백> 감독



영화촬영 책임강사
최창환 감독
 장편 <식물카페, 온정> 감독, 장편 <레이오버 호텔> 감독
 장편 <파도를 걷는 소년> 감독, 장편 <내가 사는 세상> 감독
 장편 <물속에서 숨쉬는 법> 촬영
 단편 <맥북이면 다되지요> 촬영, 단편 <은하비디오> 촬영



영화제작 책임강사
김세훈 프로듀서
 장편 <지옥만세> 프로듀서
 장편 <애비규환> 프로듀서
 장편 <우리집> 프로듀서, 장편 <우리들> 라인프로듀서
 단편 <콩나물> 프로듀서, 단편 <손님> 프로듀서



영화제작 책임강사
김화범 프로듀서
 현 (주)인디스토리 제작운영팀 이사
 장편 <이장> 제작총괄, 웹드라마 <오목소녀> 제작총괄
 장편 <견기왕> 프로듀서, 장편 <최악의 하루> 제작총괄
 장편 <반드시 크게 들을 것 2 - Wild Days> 프로듀서



특강강사 - 데이터관리, 편집
전상진 감독
 장편 <우리는 천국엔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촬영
 장편 <보드랍게> 촬영, 단편 <미스터장> 촬영
 단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촬영, 단편 <에리카> 촬영
 장편 <희수> 색보정, 장편 <생각의 여름> 색보정



특강강사 - 동시녹음
박송열 감독
 장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감독
 장편 <경아의 딸> 동시녹음
 장편 <같은 속옷을 입는 여자> 동시녹음
 장편 <겨울밤에> 동시녹음



특강강사 - 케이스터디
박두희 프로듀서
 현 용인대 영화영상학과 객원교수
 장편 <윤희에게> 프로듀서
 장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프로듀서



특강강사 - 케이스터디
추경엽 프로듀서
 현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객원교수
 장편 <여름이 지나가면> 촬영
 장편 <초록밤> 촬영
 장편 <재8의 밤> 촬영

나쁜 소녀는 Bad Girl

2023 | FICTION | COLOR | 20min

감독·각본·편집 이지연 프로듀서·조감독 권은채 촬영 손성은 조명 박미지 스크립터 김홍신 양지은 동시녹음 장일경 촬영팀 이다빈 제작팀 박유진 진현정 남유진 최지은 김정욱 데이터매니저 조외정 김동우 출연 이지윤 정유진 김소민



시놉시스

대학교 기숙사 공용 샤워실에서 물건을 훔치는 지수를 목격한 세현이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 모든 것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지수는 세현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수는 비밀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인 룸메이트 재림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조차도 곧 밝혀지고 만다. 지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재림에게 고백하기로 한다.

연출의도

불 꺼진 기숙사의 밤, 룸메이트와 나눴던 대화를 회상하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인물을 데리고 간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고민해 봤을 때 바로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소녀는 자신의 마음까지는 고백하지 못한 채 기숙사를 떠납니다. 인물이 기숙사를 떠나 어디로 갔을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다른 소녀가 고민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끝내 인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영화는 보여주지 않지만, 완성되지 않은 문장의 제목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시작은 자기 고백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공 내놔! Give Me My Ball!

2023 | FICTION | COLOR | 19min

감독·각본·편집 이석현 프로듀서 남유진 촬영 이다빈 조감독·슬레이터 진현정 스크립터 김동우 장일경 동시녹음 김태형 촬영팀 박미지 손성은 조외정 제작팀 이지연 권은채 최지은 데이터매니저 조외정 김홍신 출연 아미르 칸, 김동윤, 신용환, 김건화, 서인우, 이석현



시놉시스

하교 후, 아파트 잔디밭에서 축구공을 차며 놀고있는 현다, 민우, 유빈. 현다가 찬 공이 주차되어 있는 차 밑으로 굴러 들어간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중학생 형들이 공을 꺼내주지만 공을 갖고 도망쳐버린다. 아이들은 축구공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 세 명은 돌아다니다 축구공 찾는 것을 잊어버린 가운데, 눈 앞에 형들이 보인다. 아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축구공을 되찾는다.

연출의도

누구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겪고 소중한 물건을 되찾으며 일어나는 성장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

My Day

2023 | FICTION | COLOR | 30min

감독·각본·편집 진현정 프로듀서 최지은 촬영·조명 박미지 조감독·슬레이터 이석현 스크립터 김동우 동시녹음 장일경 촬영팀 이다빈 손성은 조외정 제작팀 이지연 남유진 데이터매니저 조외정 출연 백진연 강동윤 김동우 남희진 남혜수



시놉시스

영화감독 지망생 민지는
촬영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시나리오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을
쓰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로 인해 쉽지 않다.
민지는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시나리오를 완성할 실마리를
찾기로 한다.

연출의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던 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이상한 위안을 얻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만남과 이별은
피할 수 없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새로운 하루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나의 헤어짐이 모두에게로 확장되는 듯했다.
이 순간의 위안을 모두에게
건네주고 싶었다.



잡으러 가자

Let's Go Get It!

2023 | FICTION | COLOR | 35min

감독·각본 양지은 프로듀서 문가원 촬영 조외정 조감독 박찬우 스크립터 김민성 슬레이터 진하진 동시녹음 장일경 촬영팀 손성은 이다빈 박미지 제작팀 권은채 이지연 백민정 진현정 편집·미술·소품 양지은 박찬우 출연 문창준 서하림 손호석 이미정 김수정 최인영 이승재



시놉시스

대구의 어느 습지대, 라디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폭우로 인해 대구의 모 팟샵에서 악어가 탈출했다는 속보가 연이어 들려온다. 대구 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악어 포획 포상금 '천만 원'을 내걸며 긴급 포획 작전을 벌이는 그 가운데, 자신이 놓친 악어를 쫓고 있는 '충현'이 있다. '충현'은 6년의 연애, 3년간의 동거를 끝맺음 하기 위해 여자친구인 '소양'이에게 빚진 돈 '천만 원'을 청산해야 한다. 악어를 잡아야만 한다.

좌충우돌 '충현'과 '소양'의 악어 생포기.

연출의도

각자 다른 환경에 자란 우리는 만나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한다.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 된 마음은 늘 오해를 비롯해 어긋나고 갈라진다. 누군가는 그 오해와 어긋남조차 서로 맞지 않기에 일어나는 당연한 헤어짐이라 말하겠지만, 나는 일말의 감정이라도 남아있다면 후회 없이 용기 내 그 사랑하는 상대를 붙잡기를 바란다.

그게 다소 폼 나지 않고, 구질구질해 보일지라도.

'소양'이 '충현'을 향해 던지는 그물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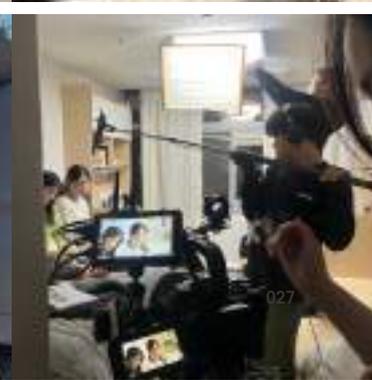
사랑을 향한 솔직한 마음을 던졌으면 좋겠다.





BEHIND THE SCENE







권은채

제작전공 | enchae7979@gmail.com

내 삶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왜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

'영화가 가진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영화 자체에 대한 많은 생각과 질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었다. 영화학교 수업과 제작 과제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영화에 할애하며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들은 잠시 중단하게 되었고, 그런 결정에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행동부터 해버렸다. 사실 영화에 대해 공부한 적도 없고, 독립영화를 많이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수업 시간 때마다 나는 여기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영화제작을 하며 프리프로덕션 시기에 그런 부족함이 여지없이 느껴졌고, 그럼에도 그것이 온전한 나의 실력이라서 정말로 후회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처음 제작 PD의 역할로 진행한 중간과제 작품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끝을 내는 보람이 주는 에너지와 느낌이 정말 좋았다. 그때 영화제작에 처음으로 반했던 것 같다.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고 현장을 잘 이끌어나간 감독님 현정리와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촬영해 준 짠한 촬영 감독님 성은이 덕분에 진심으로 정말 많이 배운 현장이었다. 마치 한 번의 삶을 산 것처럼 많이 배웠다.

졸업과제때는 내가 바친 나의 시간처럼 정말 잘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컸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 때 감독님 지연리와 촬영 감독님 성은이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우여곡절이 없는 현장은 없겠지만 많은 고민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점점 성장하는 걸 느꼈고, 우리 팀은 영화 현장을 안 겪어본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준비를 잘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벽찬 PD를 만나서 힘들었을 우리 팀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글은 영원할 테니 영원히 고마워 애들아. 태어나서 해본 일 중에 PD가 제일 어려웠다. 항상 도전하는 느낌이 들었고, 예측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책임감도 컸다. 사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나는 왜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

'내가 만드는 영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다 할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영화학교 이후에 내 인생의 계획이 좀 바뀌었고, 그냥 영화를 어떤 식으로든 계속하고 싶다. ①



남유진

제작전공 | yujin.nam.893@gmail.com

대구영화학교 5기 지원 마감 공고를 보고 지원하겠다고 센터에 전화한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화에 대해 배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늘 글로써만 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느꼈는데 영화를 접하며 말없이 영상으로 감정을 전하는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장면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원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준비된 모든 것에 제 손길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영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연출, 촬영, 제작 수업을 들으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야 할까 고민했고, 프로듀서로서 영화 전반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출 수업에서는 영화 비평 및 시나리오 작성, 촬영 수업에서는 감정이 드러나는 사진 찍기, 제작 수업에서는 시놉시스 뿐만 아니라 기획서 작성까지 해볼 수 있어 실제 제가 연출, 촬영 감독, 제작자 모두의 역할로 영화를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듣는 내내 강사님들 모두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변해주시고, 언제든지 도와주려 하셔서 든든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편의 영화를 제작하며 프리-프로-포스

트프로덕션 단계를 거쳤고, 예산, 장소 선정, 배우 캐스팅, 통제 등 현장 관련 일 뿐만 아니라 영화 기획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역 배우들을 캐스팅 하려고 팀원들과 함께 초등학교 공연, 연극을 보러 다녔던 일상이 생각납니다. 아역 배우들의 장난에 웃은 적도 많고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영화학교에서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인간 관계의 따뜻함으로 채워진 영화와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 받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학교 5기 동기들과 함께 있어서 현장에서 즐기며 영화를 찍었습니다. 동기들, 선배님들, 강사님들, 센터 관계자 분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영화학교에서 영화에 대한 지식을 쌓은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대구영화학교가 더 오랫동안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영화에 대해 기초부터 촬영까지 배울 수 있어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찍으며 계속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영화학교 5기 파이팅! ①



문가원

제작전공 | kawon0127@naver.com

졸업영화 촬영이 끝나고 정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던 며칠이었다. 그동안 못했던 개인적인 영화공부 및 좋아하는 영화도 실컷 보던 일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내 개인 단편영화 색 보정 및 다양한 사이트에 구인구직을 찾아보면서 작년 겨울처럼 단편영화 시나리오 쓸 준비와 장편 시나리오 캐릭터 구성을 하는 중이다. 6개월 동안 개인 작업보다 공동작업 위주로 진행하다보니 혼자 있는 이 시간과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재미있다. 아무튼 영화 학교에 입학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고민도 있었고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사람 반, 말리는 사람 반이었는데 그래도 지원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개인 단편영화 현장에서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스태프로 추천해주는 영화학교 선배들이 부러웠기 때문이다. 나도 저 학교에 가면 동기들과 작년 워크숍처럼 영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고 떠들던 가끔 생각나는 그런 동기들을 고향에서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화학교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은 수업과 실습으로 나뉘지는 거 같다. 영화학교 수업 자체는 고퀄리티 수업이었다. 특히 영화 이론수업이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긴장도 많이 한 수업이기도 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접할 수 있었고 영화에 대한 선생님의 상세

한 설명도 좋았고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은 긴장되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은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실습 및 졸업 작품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실습작품의 어수선�함과 졸업작품의 마음고생은 아직 마무리하기는 힘들지만 계속 머릿속에 남고 감정으로 나타나 우울해진다. 그래서 그 복잡한 감정 및 무언가를 잊기 위해 개인 단편영화 편집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학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확실히 안 거 같아서 흥미로웠다. 일을 하는 스타일이나 인간관계, 성격 등 다양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많은데 실천 가능할지 모르겠다. 우선 개인 단편영화를 출품시기를 맞춰서 영화제에 출품하는 게 올해 연말 및 내년 목표다. 그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단편영화 시나리오와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써서 내년 제작지원에 도전하는 것과 서울로 올라가 친척 집에 살면서 장편, 단편영화 스태프로 뛰어드는 것이다. 영화 외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다. 일단 멘탈 회복부터 하고 운전연수도 하고 쌓아둔 책들과 영화 목록, 음악들을 즐기며 차근차근 성장 하는게 좋을 거 같다. 그래야만 긴 인생이 행복할 거 같기 때문이다. ①



박미지

촬영전공 | dngngn2010@naver.com

처음으로 영화를 찍어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단순히 영화를 만들고 촬영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현장을 뛰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만남을 겪으면서 영화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들었던 강사님들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났다. 영화 현장에서 얻어가는 건 사람이라는 말.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 같기도 하다. 수업 내내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런 상태로 영화를 찍어내도 될까와 같은 개인적인 죄책감이 들었었다. 하지만 영화를 정말로 찍기 시작하면서 그런 걱정이 아직 공부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고 되어 행복하기까지 했다. 영화를 만들어보기 전까지 나에게 단순하게 다가왔던 영화가 한층 심오하고 풍부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그것이 마냥 싫지만은 않다. 조금 더 고심하고 조금 더 생각하며 영화를 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촬영이란 것에 매력을 느끼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촬영을 해보게 된 나로서는 반년 동안 항상 새롭고 어려우면서 또 재미있는 것들로만 가득 찬 생활을 했다. 처음으로 주제를 생각하며 사진을 찍어보고 사진을 찍으면서 기본적인 세팅들을 익히게

되고 시네마토그래피에 대해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본적인 설정을 시작으로 수많은 세팅값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런 조금의 변화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제일 신기하게 느껴졌다. 영화는 마지막에 카메라로 담아내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가 촬영 전공에 가장 큰 매력을 느낀 지점인데 이것을 실제로 실현하게 되니까 부담감이 엄청났다. 그렇지만 그렇기에 더욱 재밌었고 내가 직접 두 손으로 촬영해 내는 결과물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창작에 단계로 넘어가게 되니 지금까지 본 영화들 포함해서 창작물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했다. 예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서 어떤 창작자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제로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고된지 나는 알기 때문에 그걸 두고 한마디로 저건 쓰레기다 라고 매도해 버릴 수는 없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요즘 그 문장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 영화학교에서 배운 모든 경험을 몸에 익혀 단순히 영상을 찍어내는 단순 기술자 말고 내용을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지 고민 하면서 영상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다. ①



손성은

촬영전공 | sugn9014@naver.com

가짜가 진짜로 느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의 '꿈'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시점이었습니다. 현실과 상상이 어우러진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통해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는 궁금증과 기대와 함께 스크린 뒤 영화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학교에 입학한 후,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고전영화와 단편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심도 있는 교육을 받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화의 언어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후로는 영화를 그냥 보지 않고 시대적 배경과 예술적인 표현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알려진 영화 위주로 스쳐 지나가듯 영화를 찾아보며, 영화에 대한 특별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영화를 보더라도 배우들의 연기에 주로 관심을 두고, 그 연기가 좋으면 영화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와 특이한 소재를 가진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며, 렌즈,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조명과 같은 촬영 기술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영화의 시각적인 표현과 기술적인 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감독이 의도한 메시지와 작품의 분위기를 파악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영화를 풍부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감상하며 성장한 것은 영화를 통해 나만의 취향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며 살아왔는데, 영화 창작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고 공부하면서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명확해지지는 과정이 특히 의미 있었고 이 경험은 창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객석에서의 관람자가 아닌 스크린 넘어 작품의 한 일부로 창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매우 부담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미숙함도 느껴져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동기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해 준 덕분에 많이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영화 제작의 일부로서 협업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영화학교를 계기로 영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많은 성장이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영화를 제작을 하지 않더라도 영화와 책을 보며 사랑하고 공부하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①



양지은

연출전공 | yj900122@naver.com

나는 마음이 복잡할 땐 심야영화를 즐겼다. 맨 뒷자리 구석에서 혼자 앉아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나 또한 그 영화 안에 사는 것만 같아 나로서는 최고의 도피처인 셈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니.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 꿈에 한 발자국 내딛게 해준 영화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들은 아마 내 인생에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다.

토론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는 박인호 평론가님 수업을 들으며 관객의 시선이 아닌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며 동기들과 다 같이 그날 보았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공유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평론가님이 수업 때 보여주신 영화들은 이 수업이 아니었다면 내가 평생 보지 못했을 영화들이 대부분이었고, 이상하리만큼 지금까지도 각인되어 잊히지 않는 영화들이었다. 또,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나는 촬영 수업 당시 과제를 받고 길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과제 발표하는 날이면 동기들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를 느끼며 또 한 번 감춰있던 나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나의 감정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해석하고 바라보

는 게 흥미로웠다. 과제를 보며 동기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된 거 같다.

그리고 연출 수업은 내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던 날이었다. 유지영 감독님은 시나리오를 쓰시기 전 아이디어를 얻었던 방법, 시나리오를 시작적으로 더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 수많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셨다.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다. 나는 내가 쓴 글에 대해 믿음이 있는가. 몰입하였는가. 나는 얼마나 진솔하였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또다시 글을 쓰게 될 때는 더 나에게 확신이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영화학교가 마무리 지어가는 지금 글을 쓰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끼고 아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영화학교 교육과정을 정말 사랑했고, 촬영 전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동기들과 함께여서 이 모든 과정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싶다.

덕분에 너무 행복한 꿈을 꾸는 거 같다. 진심으로 모든 동기들이 사랑하는 영화 안에서 행복만하기를. 때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가장 평화로운 하루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①



이 다 빈

촬영전공 | bin06025@naver.com

졸업 영화 마지막 촬영 날, 후련만 하기 싫었는지 지각을 해버렸다. 하필 우리 기수의 마지막 촬영일에 지각이라니, 항상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한 명씩 인사했었는데 한 번에 모여있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니 부끄럽게도 미안한 마음보다 몽클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수업을 들으며 한 주에도 몇 번씩 영화를 계속할지 다른 일을 찾을지 결심이 바뀌었다. 아마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영화를 계속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나였던 것 같다. 사실 중간쯤엔 마음이 떠버려서 영화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정을 붙이려 오바해서 과제를 하고 더 공부하기도 했다. 나의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았을까 눈치 보기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수업을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었던 언니들의 말을 들으며 다시 생각해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도 촬영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스트레스 받는 모습도 많이 보이던 우리 조원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난 모든 촬영 현장이 재밌었고 끝나면 신나는 마음으로 뛰어서 집에 돌아갔다.

팬, 틸트도 들어본적 없었는데 렌즈 미리수까지 계산하며 콘티를 짜는 내 모습에 뿌듯해서 영화학교에 잘 들어왔다는 생각

이 든다. 하지만 중도 하차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던 때마저도 이기적이게 영화학교에 들어온걸 후회하진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우리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콘티 작업까지 마쳤던 시나리오를 싹 같이엮기로 한 후 바로 떠난 포항과 밤새며 한 회의, 거의 고정이었던 아침7시 각산 맥도날드 회의까지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어 준 우리 조원들과 정말 진득이 붙어서 힘든 촬영 함께 해낸 내 웃음벨 촬영부, 졸업 영화 촬영 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해 주던 모든 동기들, 도와주러 오셨던 선배님들, 스태프 분들 모두 사랑해요!

영화학교를 하면서 한 번씩 내가 왜 영화를 좋아했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맞아. 나 이래서 영화 좋아했었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가 사랑하는 영화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내 삶에서 영화를 떼어놓을 순 없을 것 같다.

촬영이 얼마나 영화 창작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고민과 내가 잘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에 촬영만을 하며 살 거란 확신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영화를 계속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이유가 영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해보는 것 뿐일 것이다! ①



이석현

연출전공 | dltjrgus125@naver.com

6월부터 시작한 수업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저에게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오로지 영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이었는데 후회 없었나? 라는 생각과 아직 배울 것들이 더 많아 더 배우고 싶은 욕심과 영화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제가 성장해가는 것이 느껴져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영화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앞서 영상 제작을 좋아하던 저는 '영상의 꽃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 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먼저 배우의 입장이 되어 보자' 라는 생각에 연극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연극에서 영화를 좋아하던 첫사랑을 만났고 취향 없이 그저 개봉되는 영화만 보던 저에게 매번 다양한 영화를 추천해주며 생각 없이 영화를 보던 저에게 좋아하는 영화와 장르 취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감정로나 생각로나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매력을 영화가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파고드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지원하였습니

다. 영화학교 5기 합격하게 되어 동기들과 교육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영화 하기를 원해서 들어왔나? 반성을 많이 했어요. 다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고전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영화를 알아가는 것도 좋았지만 함께 다 같이 영화를 만드는 활동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너무 설레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중간과제로 초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선배님들과 만나 같이 작품을 함께한 경험이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잘 몰랐던 영화 현장을 잘 알려주셔서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영화학교 5기를 다니며 영화를 만들면서 행복했던 추억들을 원동력으로 앞으로도 계속 영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부족한 점이 많아 계속 공부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썼었던 수많은 시놉시스들 중 하고픈 이야기를 시나리오화해서 마저 다 써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계속 영화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①



이지연

연출전공 | gpgn0905@naver.com

영화학교 지원을 며칠 앞둔 주말, 수성못을 전 직장 회사 동료와 함께 갔던 것이 기억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화학교 모집 현수막이 걸린 것을 발견했다. 아무도 모르게 영화학교를 지원했듯이 그 현수막조차도 시원하게 쳐다보지 못했다. 당장 내일모레 지원서를 내야 함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없었다. 그 고민은 제작 실습 과제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작열하는 햇볕 아래 발갱게 익은 스태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제야 내가 하는 일에 큰 책임을 느끼게 되었지만, 늦은 깨달음이었다. 크리틱이 끝나고 김천과 대구를 오가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영화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졸업 작품이 남아 있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말아야겠다고 마음 다잡았다. 졸업 작품의 시나리오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적어도 우리 스태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많은 피드백과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며 조금씩 완성해 갈 수 있었다.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어갈 즈음 프로덕션이 가까워졌고,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했는데, 그것이 내게 정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배우, 로케이션, 의상, 소품 등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감사한 것은 어떤 고려할 것들 모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각했던 이미지에 부합했던 배우의 지원이었다. 모든 것은 결국 감독이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그 두려움을 배우분들 덕분에 조금 덜 수 있었다. 현장은 즐거웠다. 웃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은 감독이 결정해야 한다는 그 부담스러운 말이 현장에서는 새롭게 다가왔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오케이 컷이 되고 다음 컷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또다시 모두가 분주해진다. 나의 말에 고요해졌다가 다시 소란스러워지는 현장의 소리가 신기했다.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 있었던 걱정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는 스태프들이 하는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 우리 스태프들은 물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모든 촬영이 끝난 지금, 영화는 여전히 내게 어려운 것으로 남아 있다.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대답은 아직 시원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인지 누군가 묻는다면 바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은 얻고 간다. ①



조외정

촬영전공 | waynecho7@naver.com

영화관람을 좋아하는데, 영화에 대해 점점 궁금해지고,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지고, 영화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 몇 년째 대구영화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 직장 등의 이유로 지원하지 못하다가 올해는 드디어 여러 여건이 허락되어 대구영화학교 5기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도 했었고, 또 다른 배움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수업 결석을 줄이기 위해, 또 졸업영화촬영 일정에 맞추기 위해 연가를 모두 쓰는 등의 무리를 해가며 참석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과목 수업 강사님들, 감독님들께 많이 배우며 즐거웠습니다. 영화 전반에 대한 수업을 통해 시야도 넓어지며 좋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연출, 촬영, 제작수업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타전공의 역할이나 어려움 등도 느낄 수 있고, 협력, 배려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교육 시스템도 도움이 많이 되어 좋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 더 많긴 하지만, 편하게 친하게 대해 준 동기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소중한 추억이네요. 그냥 간직하고 지나가는 추억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니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배우고 보

완해가며 영화등의 작업에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인생의 좋은 동반자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챙기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과제, 졸업영화 촬영 준비와 현장에서 연출과 제작부분까지 폭 넓게 경험하며, 영화현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누구 하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고, 균형잡히고 협력, 배려하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배웠습니다. 동기들과 웃고 즐기며 촬영했던 기억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나고 돌아보니 순식간에 대구영화학교 모든 과정이 아쉽게 지나갔지만, 면접 때의 다짐과 설렘이 아직 생생히 떠오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항상 열심히 배워가는 자세로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완성해 가며 다양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현장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도 하고 싶고, 항상 영화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살고 싶습니다. ①



진현정

연출전공 | bis06157@naver.com

매일 새벽 여섯 시에 일어나 영화를 보는 것은 나의 오랜 일과였다. 충격을 안겨준 몇몇 영화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보는 등마는 등하며 즐겼지만, 내겐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기 위한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영화를 보면 불수룩 마음 한 구석에선 여차하면 숨기 좋은 구덩이를 파는 듯했다. 이후로도 나는 희망이나 삶의 의지 같은 다소 묵직한 감각들을 영화로 하여금 안전하게 충족시켜 왔다.

내가 바라는 희망은 죄다 영화 속에 있었다. 현실에서 변치 않는 다정함을 요구하기란 고독을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무턱대고 꾸준한 시선을 바라는 나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졌다. 결핍을 예술로 승화시켜 해소하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 보잘 것 없는, 진짜인지도 모를 나의 오랜 결핍이 영화로 찍힐 가치가 있을까?

언젠가 아마추어리즘에 관한 에릭 로메르의 인터뷰집을 읽다 우연찮게 큰 위안을 받았는데, '자신만의 관객을 찾아가라'는 구절이었다. 불확실한 것을 내보이는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스스로 믿고 싶은 이미지(순간)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 돌이켜보니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꽤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선에 대한

이미지였다.

영화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줄곧 구덩이에서 기어나와야 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수시로 차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회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졸업 영화 제작을 코앞에 두었을 때쯤엔 갈피를 잃은 이야기와 내게 신뢰가 고갈된 동료들이 남았다. 때마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까지 맞물려 더욱더 깊은 구덩이를 파야겠다는 결심 뿐이었다. 영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 스스로가 걸림돌이 될 거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순전히 나의 믿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우여곡절 끝에 촬영이 시작되자, 마법 같은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작은 화면을 응시하는 수많은 시선들이 영화의 공백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시선을 어떻게든 찍고 있으면서도, 덩달아 카메라 밖에서 직접 경험하며 몇 번이나 가슴이 벅차올랐다. 구덩이 밖으로 기어나와야 할 필요성을 몸소 깨달은 순간이었다.

<모두가 헤어지는 하루>는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던 날, 어김없이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선의 부재를 인지하는 순간을 담은 영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시선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응시였다. 프레임 밖의 다정한 응시와 더불어. ①



최지은

제작전공 | choeeun125326@naver.com

2021년은 나에게 스무 살이 되어 조금 더 세상 밖으로 나온 해이자, 영화라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해이기도 하다. 1학기 종강 직후, 우연히 대구단편영화제에서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곧바로 신청하였고, 운 좋게 합류하게 되어 운영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 대구 안에서도 많은 영화와 영화인들이 있음을, 그리고 다양한 행사도,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영화 공부를 할 수 있는 영화학교도 매년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 꼭 한 번 영화학교에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영화제를 마무리하였다. 이쯤부터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드는 주체가 되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영화를 써 내려가는 창작자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남아 보고 싶었다. 그런 영화인으로 시작해서 언젠가 하고픈 이야기가 생긴다면, 그 이야기를 막힘없이 써 내려가고, 담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 바쁘게 1, 2학년을 마친 후 잠깐 쉬어갔으면 했고, 내심 영화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도 휴학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대구영화학교 5기로서 뽑히게 되었고 영화를 공부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마음만이 앞서고, 영화에 대해 더 깊게 들여다보고 많은 영화를 보지 못한 것이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었지만, 부족한 만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갔다. 특히 제작 전공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부딪히고, 여러 상황에 부딪히며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 상처를 뛰어넘는 많은 감동적이고 뿌듯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냥 내가 해낸 작은 일이 영화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됨을 느끼면서 움츠러들었던 나를 다시 활짝 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언제나 영화학교 동기, 선배들이 함께해 줘서, 친구, 가족들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줘서, 한 발 물러나도 두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특히 우리 팀 현정언니, 미지언니! 말로 다 표현 못 할 만큼 고마워. 더불어 영화를 만드는 모든 순간에 함께해 준, 이 글을 읽고 있을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제가 쓰러지지 않고 잘 해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영화와 닿아있을진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좋은 영화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 시작을 영화학교에서 잘 마무리합니다. :) ㉠

Chapter 2

현장 영화인 활동 지원 프로그램

Gap Year Project

GAP YEAR PROJECT

대구영화학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영화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현장 영화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 Gap Year Project'을 운영하였습니다. 창작활동을 잠시 멈추는 기간 동안 해보지 못했던 창작실험, 스터디 및 연구 등 현장 영화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모 집 요 강

모집분야	대구영화학교 -현장 영화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 Gap Year Project
모집대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화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영화인
모집인원	총 5개팀 (팀별 3인 이상으로 구성)
지원조건	-대구·경북지역 거주 중이며, 팀 구성원 모두가 단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을 보유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 타 지역 주소지더라도 실 거주 내역을 증명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비	팀당 200만원
모집일정	-서류 접수 : 2023년 5월 15일(월) ~ 6월 2일(금) 15시까지 -선정팀 발표 : 6월 7일(수)

선 정 팀 (단 체)

고라니플러스

- 러닝타임 3분~10분의 원씬 원컷 영화 제작과 다양한 촬영기법 연구
- 강렬한 연출, 제작과 미술 측면에서도 공이 많이 들어간 웰메이드 작품 제작

카메라를 멈추면 안돼! 대구에서도

- 데이비드 보드웰의 『영화 예술』, 프랑수아 트뤼포의 『히치콕과의 대화』 스터디
- 스터디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초로, 대사 없는 이미지 중심의 90초 영화 제작

월간대구아마추어필름

- 한 달에 한편씩 10편 이하, 15분 이내의 단편영화를 제작
- 대구의 장소, 대구의 배우, 필요하다면 일반인 배우를 활용한 "독립영화" 제작

알.쓸.잡.독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학 독서)

- 2주 간격으로 고전 또는 교양서적을 선정하여 발제 및 토론
- 총 5개의 유튜브 영상 대본을 만들고, 그중 하나를 영상으로 제작

[쁘띠 시네마] 아주 작은 영화 트레이닝

- 영화 전문가를 초청교육. 1~2페이지 분량의 각본을 구상, 3분 내외 영상 촬영 실습
- 교육내용을 기초로 직접 15분 이내의 솜품영화를 제작

(상단부터) 고라니플러스, 뿌띠시네마, 알.쓸.잡.독, 월간대구아마추어필름, 카메라를 멈추면안돼! 대구에서도



Chapter 3

세상을 담는 아이들

청소년영화제작과정



컨닝

2023 | FICTION | COLOR | 12min 24sec

감독·각본·편집 장하연 조감독 신민지 촬영 최민서 슬레이터 정수인 스크립터 이지원 동시녹음 송용진 이재준 미술 도연승 황시은 김현아 제작 이혁준 출연 안예은 김현아 이지민

지영은 영어 시험 기간에 절친 은수의 컨닝 때문에 자신의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컨닝 사실을 밝힐지 고민한다.



미역국 레시피

2023 | FICTION | COLOR | 12min 19sec

감독·각본·편집 이지원 조감독 정수인 촬영 김현아 슬레이터 장하연 스크립터 신민지 동시녹음 이재준 이혁준 미술 송용진 제작 황시은 도연승 출연 안예은 김현아 이지민

달력 속 빨간 동그라미가 신경쓰이는 만식. 봉아가 집을 나간 뒤 만식은 비밀스러운 작전을 짤다.

세상을 담는 아이들은 영상에 관심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영상제작 동아리 활동입니다. 영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또래문화 형성을 주도하고, 영화라는 시각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경험하며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제를 통해 한 해 10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활동하며 올해로 11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구영화학교의 정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였고 연말에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세상을 담는 아이들의 커리큘럼은 영화제작 이론 7회, 영화 장비 실습 3회, 영화 감독 특강 등으로 구성

되며, 4월말에서 12월초까지 진행됩니다. 실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전문적인 영화제작 커리큘럼을 운영 단체와 단편영화 감독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함께 하였습니다. 대학 영화과 수준의 커리큘럼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의 노하우를 경험해보으로써 영화관련 학과 등으로의 진로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 대구시민미디어센터
 지원기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펀다
 오오극장

지도교사



좌로부터
 박지하 | 대구시민미디어센터
 이경민 | 대구시민미디어센터
 박찬우 | 영화감독

Chapter 4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2019년 첫 선을 보인 대구영화학교 비즈니스 클래스는 영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지역민에게 소개하며 지역적 한계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창업이나 취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총 3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영화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지역영화인과 예비영화인뿐 아니라 영화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오픈클래스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비즈니스클래스는 매년 개설되며 지역 영화인들에게 표준 가이드가 되고 있는 영화 저작권 강의 분야 아니라, 프로덕션 디자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영화미술의 세계, 영화제의 기획과 프로그래밍 등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 업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구영화학교 비즈니스클래스는 향후에도 영화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새롭게 발굴·소개하여 대구 지역 내 영화산업에 대한 저변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비즈니스 클래스

영화 저작권의 이해

초대강사
 김민서 (영화감독)
 (주)영화제작사 대표, 영화감독, 영화제작사 대표, 영화제작사 대표, 영화제작사 대표

1. 신청기간 | 2023. 8.23 - 8.25 (월~수) 15:00 ~ 22:00
 2. 신청방법 | 대구영화학교 홈페이지, 전화 신청 가능
 3. 수.료 | 2023년 8월 23일 ~ 25일 3일간 100,000원
 4. 수.료 | 100,000원 (현금)
 5. 문의 | 053.792.7006

13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비즈니스 클래스

프로덕션 디자인의 이해

주최 김소영 (미술감독)
 (주)영화제작사 대표, 영화미술감독, 영화미술감독, 영화미술감독, 영화미술감독

1. 신청기간 | 2023. 8.23 - 8.25 (월~수) 15:00 ~ 22:00
 2. 신청방법 | 대구영화학교 홈페이지, 전화 신청 가능
 3. 수.료 | 2023년 8월 23일 ~ 25일 3일간 100,000원
 4. 수.료 | 100,000원 (현금)
 5. 문의 | 053.792.7006

23

DAEGU FILM SCHOOL 대구영화학교 비즈니스 클래스

영화로운 세상을 위한 영화제의 프로그래밍과 기획

초대강사 김민서 (영화감독)
 김민서 (영화미술감독)

1. 신청기간 | 2023. 8.23 - 8.25 (월~수) 15:00 ~ 22:00
 2. 신청방법 | 대구영화학교 홈페이지, 전화 신청 가능
 3. 수.료 | 2023년 8월 23일 ~ 25일 3일간 100,000원
 4. 수.료 | 100,000원 (현금)
 5. 문의 | 053.792.7006

33



2023 대구영화학교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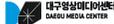
difa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http://www.difa.or.kr/eng/engmain.asp



CONTINUITY

일단영화당

주관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 Film Commission



후원

2023년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위원장	손영득
운영위원	감정원 김현정 이경민 최창환
총괄운영	권현준
코디네이터	정미나
운영지원	조윤영 남가원 이다운 김선빈

신규 영화전문인력 양성과정 책임강사 (가나다순)

연출전공	유지영
촬영전공	최창환
제작전공	김세훈 김화범
영화이론	박인호
기술특강	박송열 전상진
케이스스터디	박두희 추경엽
총괄프로듀서	감정원

청소년 과정 '세상을 담는 아이들' 강사 (가나다순)

박찬우 박지하 이경민

비즈니스클래스 (가나다순)

장서희 강소영 김광철 장병원

"Five Star" 제작

편집디자인	이승우
스틸컷	이승우

Copyright 2023 대구영상미디어센터

"Five Star"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은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ntact mediacenter.daegu@gmail.com
053.792.7008 053.792.7009

Homepage <https://www.media-center.or.kr/daegu>

Instagram @daegu_media